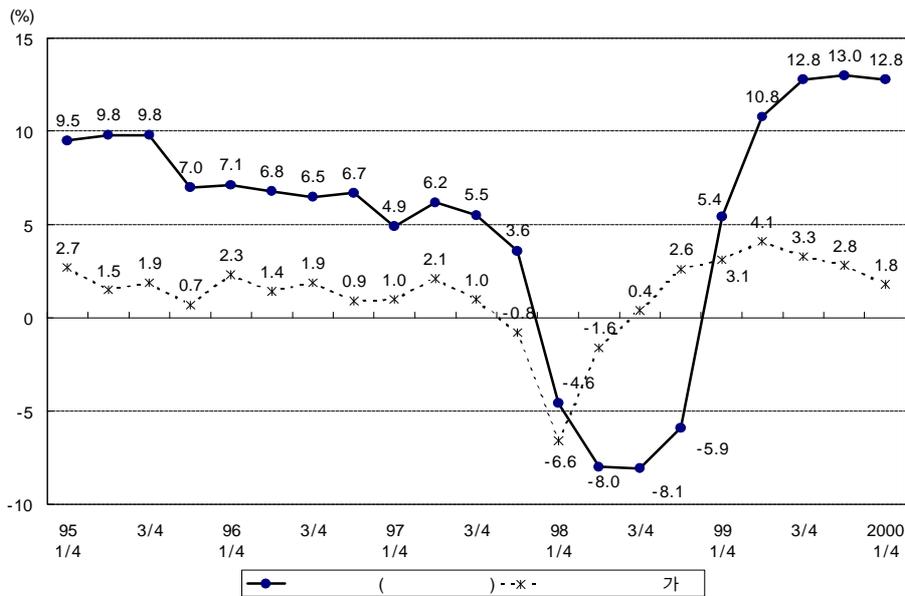


경제 성장

- (1/4분기 고성장 기록) 1/4분기 중 실질 GDP는 중화학 공업의 성장세에 힘입어 전년 동분기 대비 12.8%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음
 - (제조업) 산업용 기계, 전기 전자, 운수 장비 등 중화학 공업의 높은 성장세와 경공업의 호조를 바탕으로 23.0%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 경제 성장을 주도하였음
 - (건설업) 반면 건설업은 전년 동기 대비 7.8%의 마이너스 성장함으로써 98년 1분기 이후 연속 9분기째의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음
 - (서비스업) 통신업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도소매업 등 여타 서비스업도 호조를 보여 서비스업 전체로 11.7% 성장하였음
- (소비, 투자, 수출의 고른 호조세) 4분기 연속 두자리 수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한 것은 소비, 설비 투자, 수출 등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임
 - 가계의 내구재 소비 증가와 기업의 기계류 및 운수장비 투자, 중화학 공업 제품을 중심으로 한 높은 수출 증가세 등이 성장을 이끌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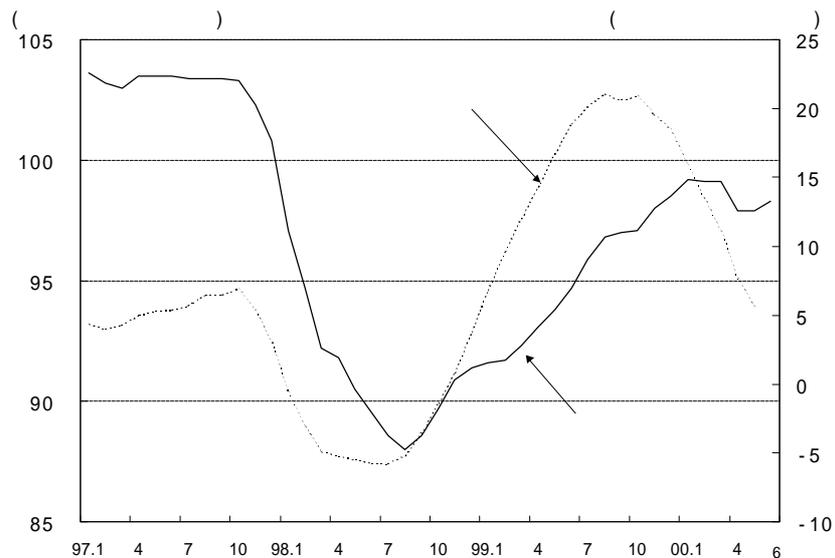
< 경제성장률 추이 >



산업 활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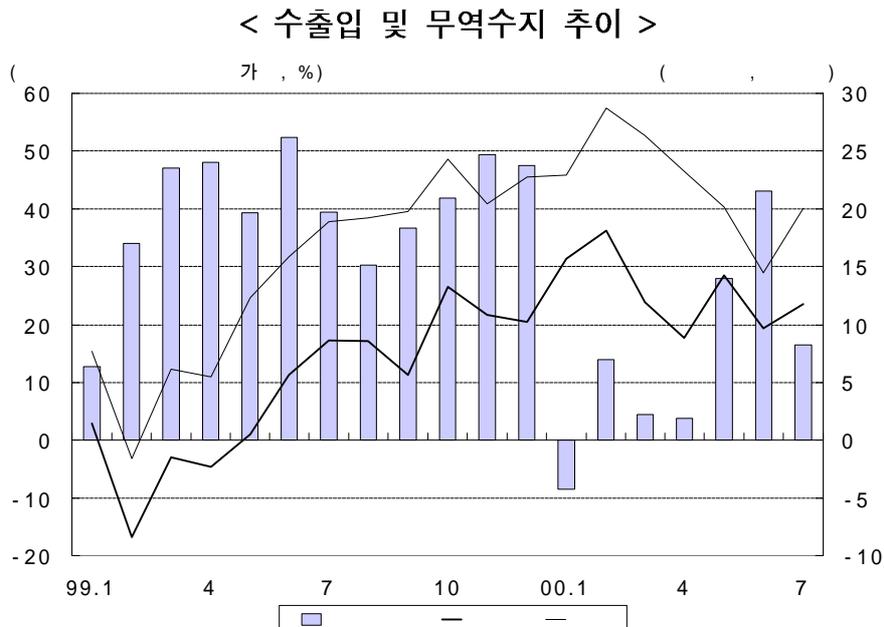
- (성장세 둔화 속 상승세 유지) 6월 중 산업생산, 소비, 투자 등 실물 경제 지표의 상승 속도는 둔화되고 있으나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 - (생산) 산업 생산은 자동차, 음향통신기기 등 대부분 업종에서 상승세가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으나, 수출이 크게 증가한 반도체 생산의 확대에 기인하여 전년동기 대비 17.9%의 증가율을 기록
 - (도소매 판매) 자동차의 도매업의 판매 둔화로 5월(14.7%)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11.1%의 증가율을 기록
 - (투자) 설비 투자는 26.1%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5월(33.1%)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되었음. 건설수주는 공공부문의 발주 증가세 전환과 민간주택 발주 증가세 지속으로 44.3%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
- 하반기 이후 경기가 하강 국면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
 - 현재의 경기국면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.4p 증가한 98.3을 기록하였지만 앞으로의 경기 동향을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전년동월비의 전월차는 -1.8%p를 기록, 작년 9월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음

< 경기종합지수 추이 >



대외 거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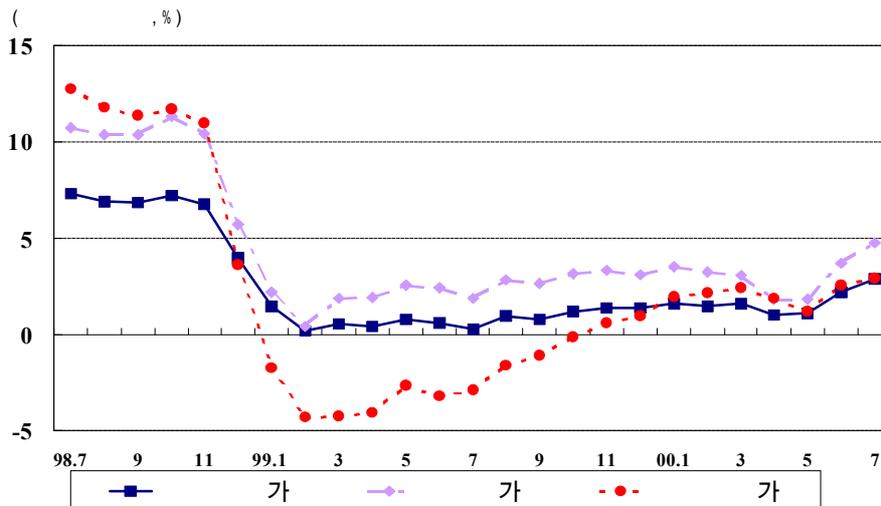
- 7월 중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3.6% 증가한 145.2억 달러를 기록하여, 두자리 수의 증가세가 14개월째 이어졌음
 - 미국 및 EU의 경기 호조를 바탕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컴퓨터, 반도체, 자동차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음
 - 반도체 및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 상승도 우리나라의 수출에 도움을 주었음
-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40.1% 증가한 137.0억 달러를 기록하여, 다시 증가세가 가파라지고 있음
 - 유가 상승, 수출 및 국내 경기 활성화에 따른 설비 투자 확대 및 부품류 수입 증가로 원자재와 자본재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
- 7월 중 무역수지 흑자는 8.2억 달러로, 전월의 23.0억 달러에 비해 흑자폭이 크게 감소하였음
 - 7월의 무역수지 흑자 감소는 계절적으로 수출이 다소 위축된 데다가 국제 원유가가 크게 상승하였기 때문으로, 특별히 우려할 만한 감소 현상은 아님



물가 동향

- 7월중 소비자 물가는 공공서비스 요금과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으로 전월 대비 0.3%(전년 동월 대비 2.9%) 상승함
 - 농축수산물 가격은 채소류와 축산물 등의 가격 상승으로 전월 대비 0.7%(전년 동월 대비 6.5%) 올랐으며 공공서비스 요금은 시내버스 요금과 상수도료 등이 올라 전월 대비 1.3%(전년 동월 대비 6.6%) 인상됨
 - 생산자 물가는 교통요금과 원유, 펄프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0.2%(전년 동월 대비 2.9%) 상승함
- 올해 5월까지 안정세를 보이던 소비자 물가는 6, 7월 들어 휘발유를 비롯한 석유류 가격과 공공서비스요금의 인상 등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냄
 - 그 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농축수산물 가격이 6월 이후 상승세로 반전된 것도 최근 물가 오름세에 기여함
 - 하반기에는 수입원재료 가격의 강세와 대중교통요금을 비롯한 공공서비스요금의 인상 등으로 공급 측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될 전망이나 내수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어서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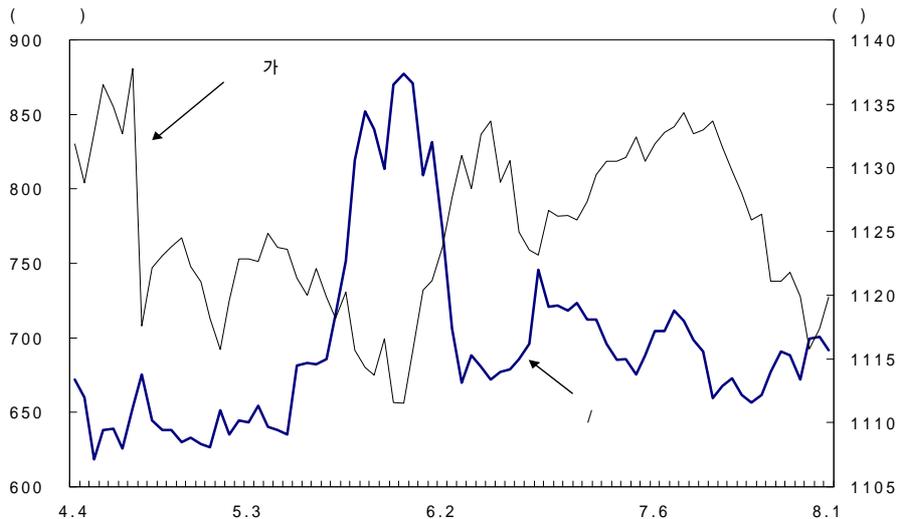
< 최근 물가 추이 >



금융 시장

- (원/달러 환율) 7월 중반까지 하락세를 보였던 원/달러 환율은 금융시장 불안감 확산에 따라 상승세로 반전되었음
 - 월초에는 동남아 통화 약세와 금융권 파업에 따른 불안감 등으로 잠시 1,118원대까지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안정감을 되찾으며 1,111원대까지 하락하였음
 - 그러나 일부 대기업의 자금 사정 악화설과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에 영향을 받아 월말까지 환율은 다시 1,116원대로 상승하였음
- (금리) 한 때 8%대로 하락하였던 회사채 수익률이 다시 9%대로 상승하였음
 - 6월을 9.37%로 마감하였던 회사채 수익률이 은행권 파업 종결에 따른 안정감으로 한 때 8.97%까지 하락하였으나, 7월 하순의 금융시장 불안감 확산과 단기 금락에 따른 경계감이 겹쳐 다시 9%대로 상승하였음
- (주가) 7월 하순들어 연일 폭락하였으나 월말에 이르러 진정 국면을 보였음
 - 일부 대기업의 자금 사정 악화설로 7월 14일 이후 거래일 기준으로 9일만에 무려 153.1 포인트(18.1%)나 하락하였으나, 이후 진정 국면에 들어서며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

< 최근 원/달러 환율 및 종합주가지수 추이 >



(거시경제실)